中 사드 여파… 농식품 수출 '불똥'

일부 품목 '규정에 맞지 않는다' 통관 거부 등 비관세장벽 강화

롯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 부지 제공으로 촉발된 사드 보복이 한류와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산 상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중국 정부가 롯데 사드부지 제공 시점 전후로 일부 품목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초 국내 식품 수출업계와 중국 바이어 및 현지 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통관 지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홍보 및 판촉 활동도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위축됐다.

여기에 일부 수출업체들은 한국산이라는 홍보 문구를 삭제하거나, 중국 바이어와 수출계약 성사 후 당초 예정일보다 공급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예정인 어느 전통차 수출업체는 과거 국내 롯데마트에 OEM 납품 이력이 있고, 반한 정서를 감안해 중국 벤더에게 납품을 늦추자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 내 롯데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롯데마트 중국 매장에 우리 농식품을 공급하는 수출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마트 매장은 6일 현재 23개로, 전체 점포 수의 20%에 달한다.

지난해 상하이지역 롯데마트에 우리 쌀을 공급한 업체 관계자는 "매장 수가 축소되면 공급업체 입장에서 신규 판로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중국 통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와 같은 대규모 마케팅 활동은 바이어 초청 상담행사로 축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식품에 우호적인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바이어 중심의 홍보 전략으로 변화를 주고, 영유아식품 등 유망품목 육성에 초점을 맞춰 대중국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생진원, GS그룹 계열 유통사 바이어 초청 상담회

현장품평회 · 구매상담 동시에… 농식품 기업 판로 열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생물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GS그룹 계열 유통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현장품평회'를 개최했다.

도내 농식품 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국내시장 판로확보를 위해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30개 업체와 GS그룹 계열의 슈퍼, 편의점, 특판, TV홈쇼핑, 모바일 분야의 유통바이어 8명이 참석해 상담건수 52건, 입점 결정 1건 및 입점예정 28건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상담품목은 즉석컵죽, 즉석발열식품, 미니고구마, 1인용 간장게장, 호박스무디 등 최신 트랜드와 소비자의 수요증가를 반영했다.

이날 행사는 생물산업진흥원이 GS리테일, GS홈쇼핑 등 GS그룹 계열 유통사 식품관련 바이어로 구성하여 도내 농식품기업 제품의 현장시음, 시식을 통한 품평과 동시에 구매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상담회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후 바이어 관심 품목으로 참가사가 구성되어 상담의 질적 성과를 높혔고, 법무분야 및 금융분야 전문가 초청으로 참가기업에 대한 현장 경영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됐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이번 상담회에서 대형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GS 유통바이어의 현장품평을 받을 수 있어 값진 자리였다"며, "바이어와 구매상담 성과도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는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현장 품평을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농식품 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화이트데이 기념 이벤트

가위바위보 게임 · 퀴즈 참여 등 푸짐한 선물 제공

이스타항공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기내에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스타항공은 화이트데이에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14일 국내선 일부 편 항공기내에서 객실승무원들과 함께하는 기내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14일 김포-제주(ZE209, ZE211, ZE215) 탑승편 승객 대상으로 사탕을 증정하며 고객들의 여행에 특별한 추억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승무원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게임과 퀴즈 참여를 통해 컵케익, 제주공항 면세점 10% 할인권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내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승무원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통해 탑승 고객들의 여행에 즐거운 추억을 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객들이 함께 화이트데이의 달콤한 분위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여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타항공과의 만남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전북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는 10일 도내 18개 팜스테이마을 대표와 사무장, 농협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팜스테이 대표들은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최고의 농촌 체험.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의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키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최광식 회장(순창 고추장익는 마을 대표)은 "팜스테이 마을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북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농촌 추억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팜스테이'는 1999년 32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전국 30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서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과 다양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 고용창출 등 농촌 활력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해 팜스테이 마을에 힐링, 레저 등 전문화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개발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촌체험관광의 활력화를 주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중국수출애로접수센터 설치 운영

전북중기청은 최근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도내 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청 수출지원센터에 '중국수출애로접수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매일 중국수출기업의 피해상황을 신청.접수 받아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지원하고, 통관, 검역 및 인증심사 지연 등 타부처 소관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애로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중기청은 '수출지원기관협의회' 소속 19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피해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국수출길이 막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을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해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대 중국 수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대 중국 수출 관련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진행

전북은행은 지난 9일 전주 아름다운 웨딩컨벤션웨딩에서 '제6회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은행은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명사초청 강연과 참석자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의 창조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격월로 리더스포럼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구절벽'이라는 주제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밝고 긍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은퇴모델을 제시하며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특히, 최성환 소장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은퇴 준비뿐 만 아니라 건강관리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고,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은퇴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안감이 이번 강연을 통해 개선됐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가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